

반환점 돈 민주 대선 후보 경선 '변곡점' 맞나?

이재명 측 “대세론 선명” vs 이낙연 측 “막판 뒤집기 가능”
“경기, 일반선거인단 우위”-洛 “부울경·서울 유리” 전망
내달 3일 인천 ‘2차 슈퍼워크’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 될 듯



도심 악취 주범 은행 열매 수거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은 은행나무 열매가 특유의 악취를 풍기며 어김없이 차도와 인도, 물론, 버스승강장과 상가지역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민원 중의 하나다. 27일 오후 광주 서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한 도로에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동 수확기로 가로수 은행열매를 털어 수거하고 있다. 진동 수확기는 나무에 진동을 줘 열매를 떨어뜨리는 장비로 나무에 피해가 적고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예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 받고 있다.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대선 후 김두관 의원이 사퇴한 뒤 이재명 경지사를 지지 선언하면서 ‘대세론’은 더욱 선명해졌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첫 1승을 따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공세 수위를 높고 표심 향배에 따른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로선 역전의 지렛대로 쓸 유일한 카드인만큼 여기에 ‘올인’한 뒤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국민일반당원의 온라

인·자동응답(ARS) 투표 집계 결과 유효투표수 4만838표 중 2만2천276표(54.55%)로 과반 1위를 달성했다. 이 전 대표는 1만5천714표(38.48%)를 얻었다. 지난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선 이 전 대표가 이 지사에 첫 승리를 거뒀다. 이 전 대표는 유효투표수 7만1천835표 중 3만3천848표(47.12%)를 기록해 이 지사(46.95%)에 비해 0.17%포인트 앞섰다. 다만 전북에서 이 지사가 큰 폭으로 다시 앞서면서 호남 전체 득표율은 이 지사가 49.7%로 이 전 대표(43.99%)를 제쳤다. 호남을 포함한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 53.01%(34만1천858표) ▲이 전 대표 34.48%(22만2천353표) 등으로 격차는 18.53%포인트(11만9천505표)다.

선두인 이 지사에 12만표 가까이 뒤지며 결선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가 될 내달 3일 ‘2차 슈퍼워크’에 다 걸어야 하는 이 전 대표로선 선택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홀 그라운드’인 호남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 등에 힘입어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만큼의 성적표를 올리지 못한 것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조준점을 살짝 바꾸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토건 비리 세력’ 전방을 조준하며 의혹 공세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 전 대표는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부 합

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며 전방위적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의혹이 커지면 결국 선거인단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민심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이 전 대표 측은 지역순회 경선이 이제 반환점을 돈 만큼 결선 투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상승동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향후 경선 지역에 대한 유불리 해석은 나뉜다. 이낙연 캠프는 부울경과 서울에서 유리한 것으로, 이재명 캠프는 경기와 일반 선거인단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망한다. ▶2면에 계속 /이종행 기자

광주·전남 확산세 지속...거리두기 재연장 ‘무게’

“10월 초 연휴 앞두고...확진자 폭증 우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광주와 전남에서 타 시도 접촉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또 내달 초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또다시 급증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1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광산구 외국인 관련이 9명, 서울·부산

·인천·대구 등 타 시도 확진자 관련이 7명이다. 기존 확진자 관련이 2명이고 유증상 검사자가 1명이다. 외국인 확진자가 근무하는 광산구 소재 중학교의 학생·교직원 등 168명을 진단 검사해 모두 음성인 나왔다. 시는 추석 연휴 당시 영주체육관 등 야외 공간에서 집단 음주 등이 이뤄진 것을 확인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구청·경찰은 합동점검반(12명)을 편성한 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야간에 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전남에서는 목포·여수·나주·장

흥·영암·무안·신안·강진 등 8개 시·군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1일부터 7일 연속 두 자릿 수의 확진자다. 확진 판정을 받은 12명 중 6명은 타지역 관련 확진자다. 영암과 여수에서 발생한 전남 3020·3027번은 대구 외국인 지인 모임 관련자로 분류돼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신안에서 발생한 전남 3025번은 전주 확진자의 가족으로 추석 연휴 기간 접촉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나주에서 확진된 전남 3029번은 광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3030번은 유증상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다. 장흥 거주 전남 3021번을 제외한 전남 기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이들은 모두 기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으로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3021번은 전남 2974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현행 조치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월 초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적 모임과 만남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 기자

초당대 총장, 전국 사립대 중 연봉 ‘킹’

3억4천600만원 받아...운영역 의원 “긍정적이지 않아”

지난해 초당대학교 총장 보수(연봉)가 3억4천600만원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1개 사립대학 총장의 평균 연봉이 1억6천여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운영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학년도 광주·전

남지역 4년제 사립대학 총장 보수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당대 총장이 연봉 ‘킹’을 기록했다. 이어 호남대 총장(2억4천4만원), 남부대 총장(2억147만원), 조선대 총장(1억9천600만원), 동신대 총장(1억6천600만원), 광신대 총장(1억700만원) 등이었다. 광주·전남 사립전문대 총장 연봉은 기

독간호대 총장이 1억8천600만원으로 지역 사립전문대 총장 중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보건대 총장(1억7천100만원), 청암대 총장(1억6천만원), 조선이공대 총장(1억5천100만원), 서영대 총장(1억4천200만원), 동강대 총장(1억3천500만원) 등이었다. 광주·전남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연봉은 호남대 이사장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당대 이사장(1억5천만원) 순이었다. 전국 사립대 38개 학교법인 이사장의 평균 연봉은 8천여만원이다. 사립대 법인 이사장의 경우는 관련법

에 따라 법인 정관에서 정한 상근 임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대학살림은 어려워지는데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사학이 부담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정부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제13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THE 13TH KJ DAILY PHOTO EXHIBITION

접수 마감 **10.29**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CE21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장정불요)

출품수 4점 이내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심사장소 광주에총 제2전시실

심사방법 2021년 11월 5일(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 www.kjdaily.com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전라남도 교육감 상장 및 광주매일신문 장학금 30만원
- 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장학금 20만원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장학금 10만원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상 부상 50만원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8일(수) 오후 2시 /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다목적실(예정)

작품반송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합한 자)
- 본 대전 입선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입상, 입선작은 주최측에 귀속하여 협회 또는 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을 지어 함.
- 초대작가 16"×20"액자 제출, 출품시(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입요망)